美 언론 "김정일 와병 틈타 권력 투쟁 가능성"

"후계구도 불명확…대외 강경기조 군부, 입김 세진 듯"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자 미국 언론들은 북한 내 권력투쟁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 북한 내에서는 김 위원장의 와병을 틈타 이미 권력투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군부가 북핵 불능화 중단 등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북핵 불능화 중단이 김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관리들이 권력공백을 이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권력투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NYT는 또 북한 전문가인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 국기업연구소(AEI) 수석연구원을 인용, 김 위원장이 세 명의 아들 가운데 후계자를 공식 지명하지 않았다면서 미국 관리들은 김 위원장의 유고시 국방위원회가 권력의 중심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서도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긴급 메모가 돌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반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핵협상에 우려를 키우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후계 구도를 준비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북한의 정치 마비나 권력 투쟁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 정권의 불안정은 다른 나라들을 중재자로서의 중국의 역할에 더 의존하게 만들어 동북아 지역에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하는 문을 열어줄 수 있다면서 북한의 권력 투쟁이 격화될 경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중국과 한국의 충돌도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3명의 아들과 딸 중에 후계자를 선택하지 않았고 오랜 2인자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단기적으로 더 큰 역할을 맡을 수도 있지만 미 정부의 몇몇 관계자들은 김 위원장이 지도력을 잃을 경우 북한의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이 중단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아시아재단의 스캇 스나이더는 외부에서 볼 때 가장 어려운 시나리오는 지도력을 결정하는 정치투쟁의 전망이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핵 물질 통제 문제가 권력 투쟁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학송(왼쪽) 국회 국방위원장이 11일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이상희 국방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국방장관은 이날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등에 대해 보고했다. /연합뉴스

"김정일 빠르게 회복중…부축하면 일어설 정도"

한나라 이철우 의원 "北 군부 내 이상 징후 없어"

국회 정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11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병세와 관련, "부축하면 일어설 수 있는 정도"라며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김 위원장의 다친 부위는 순환기 계통, 혈관 계통으로 빨리 치료해 현재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은 지난 7월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나 8월14일 이후 공개석상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그때 이미 다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을 8월 중순 이후 감지하고 있었다"면서 "현재 북한 군부내 이상징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 유고시 후계구도와 관련, "김 위원장의 몸 상태가 완전 마비돼 갑자기 후계 구도를 결정할 경우 집단지도체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 상태가 호전돼 계속 가면 그때 후계자 문제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北 서해안에 제 2미사일 발사기지

8년전부터 건설…인공위성 발사도 가능

북한이 무수단리에 설치된 기존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기지보다 규모가 더 크고 기능이 향상된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를 비밀리에 서해안에 건설했다고 미국의 민간전문가들이 주장했다.

제인스 인포메이션 그룹의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디즈는 올해 봄 이러한 미사일 발사기지를 처음 확인한 후 위성사진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업체인 탤런트-키홀 닷컴의 팀 브라운과 함께 상업용 위성사진을 이용해 기지의 건설작업을 추적해 왔다고 AP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이들에 따르면 새 기지는 '봉동리(Pongdong-ni)'라는 작은 마을에 건설됐으며 이동 가능한 발사대와, 탄도미사일이나 로켓을 지지할 수 있는 10층 높이의 타워로 이뤄져 있다.

이 기지의 건설작업은 적어도 8년 전에 착수됐으며 아직까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장래에 미사일의 발사가 이뤄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브라운은 강조했다.

이 기지는 특히 인공위성의 발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지는 그러나 미사일이 발사대로 옮겨지기 전 최종 조립이 이뤄지는 수직형태의 조립 건물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레이더추적시설도 발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美 대선 때아닌 '립스틱' 논쟁

오바마 "립스틱 발라도 돼지는 돼지" 발언 논란

매케인측 "여성 비하" 오바마측 "비열한 술책"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인 '새라 페일린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 진영과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 진영간 때아닌 '립스틱 논쟁'을 벌이고 있다.

논란의 빌미는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제공했다.

오바마는 9일 공화당 매케인 후보가 지난 주 전당대회에서 '차별화된 변화'를 주장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오바마는 매케인의 '변화' 주장에 대해 "립스틱을 발라도 돼지는 돼지"라면서 "잡은 지 오래된 생선을 변화라고 불리는 종이로 싸더라도 8년이 지나면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것"이라며 매케인 후보의 정책이 조지 부시 행정부의 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매케인 진영은 오바마의 언급은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새라 페일린을 겨냥한 것이라고 발끈, 오바마는 여성 부통령 후보에 대한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쟁점화하고 나섰다.

앞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페일린이 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알래스카의 평범한 엄마인 '하키맘'으로서 자신과, '핏 불'이라고 불리는 맹견처럼 공격적인 여성으로서 또 다른 자신의 차이는 '립스틱'뿐이라고 농담을 던졌기 때문이다.

특히 매케인 진영은 10일부터 오바마의 '립스틱 발언'을 비난하는, '국가를 이끌 준비가 돼 있나? 아니요. 비방할 준비가 돼 있나? 예'라는 제목의 인터넷 광고에 나섰다.

화당이 공격해 오자 오바마는 이날 버지니아주 노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자신은 돼지와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페일린을 비교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뒤 공화당의 주장을 비열한 선거 전략이라며 반격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민주, 추석 민심 읽어라

임동욱
서울취재팀 차장

민주당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동안 대대적인 한가위 민심 잡기에 나선다.

우선 당 지도부는 11일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귀향 인사에 나선데 이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사회복지시설과 재래시장, 자영업 현장을 들러 경제난에 허덕이는 바닥 민심을 위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동안의 실정은 물론, 감세 정책, 추경 예산 등 여권의 '특권층 정책'에 대한 실상을 밝히는 등 당의 서민·중산층 정책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바닥 민심을 적극 공략, 10% 후반 대에 머물고 있는 당 지지율 제고시키고 대안 정당, 견제 정당의 면모를 확실히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의 계획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지난 6개월 동안 나타난 이명박 정부의 실정만큼 민주당이 보여준 정치적 무기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대선과 총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진지한 반성을 바탕으로 환골탈태하기 보다는 당 지도부 구성 등에서 기존의 정치적 질서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과거 열린우리당과 구 민주당에서 벗어난 새로운 대안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이라는 이미지 각인에 실패하면서 오히려 국민과의 소통 구조가 단절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쇠고기 정국에서 보여준 '뒷북 대응'과 각종 현안에서 나타난 어정쩡한 정체성은 강력한 제1야당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쇠고기 특위, 공기업 특위 등 국회 개원과 함께 진행된 각종 특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눈에 띄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물론 각 상임위에서도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모습을 지켜보는 호남의 민심은 싸늘한 차원을 넘어 아예 관심 밖이라는 반응이다. 정권을 잃고도 진지한 반성과 새롭게 출발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호남의 정치·경제적 위기가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별다른 리더십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전남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도 높아가고 있다.

과거 혹독한 군부독재 시절에도 희망이 있었지만 현재의 민주당에서 희망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여론인 것이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 민주당에 요구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 비판에 앞서 민생의 중심에서 이뤄지는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다. 추석 민심의 쓴소리와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민생의 중심에 서는 민주당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 tuim@kwangju.co.kr